

“온가족 한 끼 밥 먹기도 버겁다”

물가 상승률 금융위기 수준

광주 4.9%·전남 5.5% 치솟아

식용유 58%·밀가루 40% ↑

배추·무 가격도 ‘천정부지’

추석 앞두고 ‘밥상물가’ 비상

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광주·전남 지역 물가가 각각 4.9%, 5.5% 오르는 등 연말 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(IMF)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커졌다.

이에 따라 추석 명절을 한 달 남기고 성수품 가격 상승 등 ‘밥상물가’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.

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~7월 누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주는 4.9%, 전남은 5.5% 올랐다. 전국 평균 상승률은 4.9%로 집계됐다.

물가 누계 상승률은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연간 수준(광주 4.7%·전남 4.8%)을 뛰어넘었고, 연말 물가 상승률이 5%를 넘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(광주 8.1%·전남 8.3%) 이후 한 번도 없었다.

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하락하지 않는 이상,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%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.

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길이 다시 열리고, 지난 6월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 유가가 이달 들어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해 가



을 정점을 찍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, 불확실성은 여전하다.

이처럼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추석을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제수용품 등 식품 물가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.

지난달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농축수산물 78개 품목 가운데 57개가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다. 이 가운데 광주 37개 품목이, 전남은 34개 품목이 ‘두 자릿수’ 상승률을 보였다.

지난달 광주에서 가장 많이 오른 농축수산물은 체리(75.8%)와 오이(72.4%), 호박(69.6%), 배추(65.4%), 부추(60.8%) 등이었다. 전남에서는 호박(62.8%)과 배추·열무(각 59.8%), 오이(53.8%), 감자(50.4%) 등 상승률이 높았다.

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 탓에 식용유(광주 58.2%·전남 47.4%)와 밀가루(광주 40.4%·전남 42.5%), 설탕(광주 20.3%·전남 19.2%), 소금(광주 18.2%·전남 22.0%), 된장(광주 15.1%·전남 9.4%) 등 주요 가공식품값도 크게 뛰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.

명절을 한 달 앞둔 이달 8일 기준으로 성수품 10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가격 합계액은 지난해 추석을 한 달 앞둔 날(8월17일)보다 36.9%나 뛰었다.

이날 광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밀가루 1kg

(1880원), 식용유 900ml(4580원), 수입 쇠고기 100g(4284원)과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 거래하는 농축수산물 등 10개 품목 합계액은 3만3808원으로, 지난해(2만4690원)보다 36.9%(9118원) 급등했다.

배추 1포기 값은 4700원에서 7760원으로 65.1% 올랐고, 무 1개 49.2%(2500원→3730원), 감자 100g 73.9%(230원→400원) 등 상승률이 높았다.

수입 쇠고기(미국산 갈비 100g) 값도 64.8%(2600원→4284원) 뛰었고, 닭고기 1kg 45.0%(4200원→6091원), 돼지고기(삼겹살 100g) 12.0%(2280원→2553원) 등 축산물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. 하지만 이는 사과(10개 3만1900원)와 배(10개 4만1800원) 가격이 제외된 금액으로, 수요와 기상여건에 따라 추석 성수품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.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“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고랭지 배추와 무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크게 올랐다”며 “명절을 한 달 앞두고 사과와 배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, 추석 직전에는 다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말했다.

정부는 이번 주에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.
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박순애 부총리·교육부 장관 사퇴

34일 만에...“모든 논란 제 불찰”
‘만5세 입학’ 등 개편안 졸속 추진



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사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가진 뒤 회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. /연합뉴스

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. 취임 34일 만으로,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로는 첫 사례다.

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사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“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”고 밝혔다.

박 부총리는 “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”며 “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”이라고 밝혔다.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에,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한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.

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학부모와 교육계,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최근 지지율이 20%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로 박 부총리를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.

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.

박 부총리는 앞서 정부 출범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‘폴브라이트 장학금 아베찬스 의혹’ 등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고 나서 깜짝 발탁됐다. 그러나 만취 음주운전, 논문 표절 의혹, ‘조교 갑질’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.

국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, 결국 윤 정부 출범 이후 56일간 교육부 수장 공백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5일 취임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尹 “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”

여름 휴가 후 업무 복귀

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한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‘휴가 복귀 소감’에 대한 질문에 “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”고 밝혔다.

<관련기사 3면>

윤 대통령은 이어 “지난 선거 과정, 또 인수위, 취임 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”며 “돌이켜 보니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, 어떤 때는 호된 비판으로, 또 어떤 때는 따뜻한 응원과

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다”고 설명했다.

또 인적쇄신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“모든 국정동력이란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”며 “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. 그런 문제들도 (집무실로) 올라가서 살펴보고,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윤 대통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‘내부 총질 당 대표’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.

/임동욱 선임기자 tuim@kwangju.co.kr

5·18 광주 촬영 3000여장

광주일보 사진자료집 발간

5·18진상규명위 자료 활용 ▶7면



사랑과 감사의 68년
믿음과 소망으로 100년
[1954~2022]
기독교명문대학
광신대학교
www.kwangshin.ac.kr

가름 르포 - 화순 춘양면 한재마을 가보니 ▶6면

굿모닝 여행 - 통영 예술여행·전남 정원 ▶18-19면

20살 김주형, PGA 원팀 챔피언십 우승 ▶22면

슈퍼레티놀
단 2주만에 주름잡다
|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.1% |

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,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?
이제,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
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

레티놀은 아이오페

IOPE

*인·40~50세 성인 여성(대상) 2019.08.16~10.17 8주간(1회)피부임상실험결과
고려상당심 090-023-5454 | www.iope.com